+ Hilgrove Kenrick · SOUND ON SOUND

EUPHONIX MC Pro Assignable DAW Control Surface(2) : 사용자 중심의 컨트롤러 MC Pro



networking

MC Pro의 설치방법은 간단하다. MC Pro는 이더넷(Ethernet)을 통해서 연결되며,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스테이션과 반드시 연 결되어야 하는 4포트 라우터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EuCon protocol이 high-bandwidth와 time-critical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네트 워크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경우는 MIDI-over-LAN과 sample streaming을 사용한다. 사용자의 DAW 장비에 EuC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Windows XP와 Mac OS X가 32bit를 지원해야 하며 64bit까지 지원한다. Windows Vista를 위해서는 조만간 구현될 것이다. MC Pro 설치의 최종 단계는 여러 가지 종류들로 제공되는 EuCon license 이다. Nuendo일 경우 Steinberg license들과 는 다르게 Synchrosoft dongle에 설치되어 있는 별개의 license가 필요하다. Pyramix 사용자들은 반드시 EuCon과 연계되 어 설치된 Merging사 고유의 control protocol인 OASI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Sonar 7.02나 Logic 7 혹은 8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에 이미 EuCon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다. 만약, 사용자가 단지 HUI-capable application만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license가 필요 없고, 키보드와 마우스 컨트롤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 OS 지체만 설치 할 수 있다.

파워 서플라이의 스위치를 켜면 터치스크린에서 정상적인 BIOS POST 화면을 보여줄 것이고, 이어서 Windows XP를 로딩 한다. 잠시 후, MC Pro GUI가 터치스크린에 뜨고 트랙볼(Trackball)이 사용자의 DAW 장비의 커서를 움직인다. 처음에는 MC Pro의 버튼들이 전반적으로 공란(blank) 상태를 보이지만, Nuendo 4를 시작하면 이내 모든 버튼들과 컨트롤들이 기본 값(default) 상태로 돌아온다.



Smart Work

기본 값 세팅(Default command setting)에서 MC Pro를 사용해 보면, MC Pro를 이용한 작업이 아주 쉽다는 것을 즉시 알 게 된다. 트랙볼이나 조그셔틀(jog/shuttle)의 사용만으로도 fades, lengths, splitting, zooming in/out 동안에 뮤팅 섹션 (muting section)들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



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불필요한 작업의 동선을 간소화시켜서 매우 단순한 작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컨트롤러들이 갖추어 야 할 면모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소프트 노브(soft knob)들이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오디오 채널(audio channel)을 터치하면 그 채널에 지정 된 노브들이 뜨고 그와 연관된 모든 스마트 스위치 들과 EQ, dynamics, auxiliaries, inserts 등의 기 능들을 불러 오게 된다.

EQ 스위치를 누르면 사용자 DAW의 channel EQ 를 구동하고, 각 스위치들의 꼭 필요한 값을 함께 표시하여 준다. 또한, 이것은 DAW 상의 EQ 창을 띄워 줌으로써 사용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확인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MC Pro의 기본 Nuendo setup은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러그-인(plug-in)들을 손쉽게 실행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 인서트 버튼(Insert button)을 누르면 8개의 슬롯들 중에 하나에 인 서트 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하게 되고, 곧바 로 DAW의 스마트 스위치들이 그 플러그-인을 반영하게 된다. 필자 는 Nuendo의 delay, distortion, dynamics 등과 같은 기본 목록 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Powercore folder와 설치된 모든 VST 플러그-인들도 불러 온다. 위쪽에 있는 페이징 버튼들은 8개의 플 러그-인들을 스크롤하는데 사용된다.

Dynamics 버튼을 누르면 즉시 귀속되어 있는 모든 플러그-인들의 스위치들을 바꾸어 준다. 원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하면 화면에 새로 운 팝업 창으로 그 플러그-인이 뜨게 되고, 그와 동시에 모든 스위 치들의 파라미터(parameter)들이 표시 되고, 노브들 주위의 LED에 의해 세팅 값을 표시한다. 노브들은 모두 터치-센서티브(touchsensitive)로 되어있고 양방향으로 가속과 감속의 수치 계산이 가능 하다.

4개의 페이더들도 역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customize)가 가 능하다. 4개의 페이더 그룹들 안에서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조정하거나 페이더들을 특정 트랙에 영구적으 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다.



작긴 하지만 트랙 미터는 퀵 레퍼런스(quick reference)를 위해선 아주 유용한데, 특히 DAW window가 다른 작업으로 바쁠 경우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MC Pro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Nuendo의 컨트롤 룸(Control Room) 기능을 보면, MC Pro는 자동 적으로 사용자의 모든 세팅 값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control room 과 studio, headphone 전반에 걸친 즉각적 컨트롤을 제공한다.



필자에게 EUPHONIX가 지금까지 MC Pro를 개발하면서 성취한 것 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령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노브 (assignable knob)이다. 보기에는 그저 별다른 기능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매뉴얼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실 이 assignable knob는 스마트 스위치(smart switch) 와 함께 파라미터 이름과 값(value)을 표시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마 우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노브를 누르면 값을 잠그게 되고 또 커서를 멀리 옮겨 놓는다고 해도 여전히 컨트롤 할 수 있다. audio fades나 cuts를 편집할 때 snap values와 같은 기 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Chopping & Changing

지금까지 MC Pro가 기본 세팅을 포함한 많은 부분까지도 컨트롤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은 아무리 기계치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되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사 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MC Pro의 부분에 대한 지정된 셋업 버튼을 누르고 커스터마이즈하기를 원하는 스마트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고 나면 그 스위치가 깜박이고 터치스크린 상에 해당 키를 위한 모든 옵션들이 뜨게 된다. 이들은 4개의 카테고 리(Key, EuCon, bank, MC commands)로 나눠진다. 어떻게 보면 이 4개의 카테고리가 이 장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EuCon command들은 사용자의 DAW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모든 커맨드들이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Nuendo의 경우, 이런 목록이 방대하지만 다행히 이들 목록들은 track controls, file, export 등과 같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key command나 마우스를 누름으로 모든 실행이 가능하다.

EuCon command들은 다른 브랜드 컨트롤러들과는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EUPHONIX의 MC Pro는 단연 최고의 키 커맨드들을 자랑한다. 이들은 '붙여넣기'를 위한 'Ctrl-V'와 같은 간단한 명령어들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 서,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매크로 명령들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한 번에 세팅 할 수 있다. 이 제품이 가진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제품은 좀 더 완전한 개방형 아키텍처(openended architecture)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명령들을 실행하고 배치할 수 있다.

Banking On The Future: MC Pro Expandability



MC Pro는 그 자체로도 완벽한 컨트롤러이다. 또 한, 페이더 뱅크(fader bank)들을 추가한다면, 더 큰 범위의 컨트롤 서브페이스(control surface)로 서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다. 페이더 뱅크(Fader bank)들이 추가되면, 좀 더 많은 영역을 처리할 수 있는 System 5 MC가 된다. 8채널 CM408T fader banks는 기존 EUPHONIX System 5 콘 솔을 모태로 디자인 되었으나, 여기에 좀 더 최신 의 컨트롤 노브 디자인과 약간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각 채널들은 input metering, strip solo, mute, swap, channel arming에 대한 버튼들과 함께 100mm 페이더를 포함한다.

What Makes The MC Special?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제품의 전체적인 면을 충분 히 설명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MC Pro는 WK Audio ID surface나 Digidesign의 C24 혹은 그 보다 더 비싼 ICON과 같은 제품들보다 적고, 심 지어 Mackie Control보다도 적은 페이더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보다 더 많은 기능과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 스 위치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MC Pro는 이러한 스 마트 스위치들의 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브 랜드의 컨트롤러들도 드물게 조그휠, QWERTY 키보드, 그리고 명령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노브 (assignable knob)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MC Pro처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는 없었다.

본인이 편집에 원하는 오디오를 가지고 있고, Nuendo에서 그것을 내보내고자 할 때, 일반적인 실행방법에서 보면, 다음의 과정들을 따라야 한다. 마우스를 잡고, snap resolution을 선 택한 다음, 이동해서 클릭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키로 trim, slip, split, cut, 그 리고 다른 옵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혹은 키보드를 이용)한다. 만약 zoom in 혹 은 out을 하려면, project window의 가장자리에 있는 슬라이더를 잡거나 키보드 단축키 를 이용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 일단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정되고 준비되면, 내 보내기 위해 파일메뉴로 가서 익스포트(export)를 선택한 다음 name, format, bit rates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일한 작업들이 MC Pro에서는 손을 거의 움직일 필요가 없다. 트랙볼 위쪽에 있는 스마트 스위치들을 Primary edit control들로 디폴트(default)하게 되면,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trims와 fades, 또는 전반적으로 클립을 이동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 다. 이러한 작업들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 필자는 assignable knob의 설정을 snap resolution으로 맞춰놓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사용한다. Zooming을 할 때는 트랙볼 옆 에 위치한 스마트 스위치들을 디폴트로 하게 되면,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zooming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편집이나 조정은 트랙볼 둘레에 있는 링으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익스포트를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4개의 스마트 스위치들에서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익스포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트랙볼에 서 스마트 스위치로 곧바로 익스포트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default title, path, format settings를 불러냄으로써, Nuendo macro를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 로써 작업 중 다른 방해 없이 익스포트를 실행할 수 있다.

Going Global

MC Pro가 자랑하는 기술의 정점은 4개의 Workstation Select buttons이라고 할 수 있 다. EuCon의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옵션으로 제공되는 KVM(Keyboard, Video, Mouse) 스위처를 사용하면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르더라도 동시에 4개의 다른 워크스테 이션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

KVM 스위처 기능의 장점은 모니터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은 포스트 프로덕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왜 냐하면, ADR, foley, music 등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수정되는 stems를 각각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나 페이더 연결 유무에 상관없이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System 5 MC fader banks들을 잠글 수 있다.

EuCon의 Final Cut Pro와 같은 기능은 필름이나 오디오 편집도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 능하게 해준다.

